



여기다. 금씨는 「남자들은 일거리가 없다. 이 사회가 불평등하다. 여자를 잘못 만든 재수가 없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자포자기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여성이 만능은 아니다」 「비인 여성들이 「가난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악몽에서, 남편이 가사노동자 노릇의 세가지 불평등을 지고산다고 한탄하고 있다.

더구나 올림피아에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은 「여자를 사냥하는 이유로 삼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는 철거민 노점상들」 도시빈민들이 88올림

「남편은 돈을 벌어주는 못벌어요」 「남가져와」 하면 그만이지만 쌀 떨어지지를 아는 주부들로서는 자식 남편 배필할수가 있나요. 무슨 수를 쓰든 돈을 벌어야지요...」

지난 8월 한국불교사회교육원 민중여성학교에서 「반민여성」 빈민아동에 대해 강연한 金順德씨(서울시 철거민 협의회 부회장)의

최근 가장 해탈을 못마는 계층이면서도 올림피아의 그늘에 가려 더욱 병폐를 받고 있는 빈민여성들의 여성단체와 여성학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단체와 여성학자들은 「빈민문제는 여성의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실안에서

만 외치는 여성발전이론에서 벗어나 빈민여성들을 알고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있다. 빈민여성들을 또한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선을 외치는 한편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질투에서 벗어나려는 불투망을 보이고 있다.

性 차별 사회 냉대의 二重시련



빈민도 살 권리가 있다고 외치는 철거민들.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에게 여성단체와 여성학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自立的지 돕자” 各界관심

피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 이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서울시철거민연합회 「도시노점상연합회」를 조직해 가난한 사람도 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노점상폐쇄」의 위기관재가 안오겠느냐. 우리도 같은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여성들을 위한 「도시노점상연합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대해 보듬어선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투쟁하는 취지에서 이자리를 마련했다며 차차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류여성민우회 기록여성회들의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여성들을 위한 「도시노점상연합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대해 보듬어선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투쟁하는 취지에서 이자리를 마련했다며 차차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단체 지원 얻어 탁아소 공부방 마련 子女교육에도 열성

마를들 돌기 위해서다.

한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는 강의실에서 이화대 여성학이론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여성과 호흡하기 위해 서울麻浦구 麗明동 4개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여성자립을 위한 현장연구를 펴고 있다. 여성학이론을 현장에서 검증해보면서 「나라도 못구한다」는 가난을 저소득층 여성 스스로 구하도록 돕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

이 지역 여성의 65.4%가 국민학교와 무학의 학력 수준으로 20세 이상의 47.5%가 취업률 하고 있으며 취업지침은 주로 가내부업과 출부 노점상의 판매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신생활일이 많아 신생활을 위한 부인과 생활을 하다가 지성의 병을 끼고 산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 이들 대부분은 「빈민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자활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 적절한 뒷받침이 있을 때 이들의 생활은 한걸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연구소 鄭世華원장은 「이들의 어려움을 남의 구해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조직화 자신들이 문제해결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그 결과 주민들의 힘으로 탁아소 공부방 등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한다. 또 이곳 여성들에게 자립도움금을 직업교육을 실시해 스스로는 한걸음의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연구소의 현장연구는 현장연구를 해보니 지금까지의 여성현황부가 조별개조연구의 중심을 여성의 계만 치우쳐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당장 먹고살기에 바쁜 사람들에게 여성지위향상은 공허한 구호였다는 것. 이제 각층의 여성들이 성정의 해탈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이외의 관 연구 및 여성들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金順德기자〉